

TV 25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list various TV programs and their broadcast times.

EBS1

Table listing EBS1 programs with columns for time, program name, and details.

EBS플러스1

Table listing EBS Plus 1 programs with columns for time, program name, and details.

EBS플러스2

Table listing EBS Plus 2 programs with columns for time, program name, and detail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6월 24일(음 5월 10일 壬申)

48년생 어지간해서는 이렇기가 어렵다. 60년생 흥정을 잘 붙인다면 두둑한 사재가 따를 것이다. 72년생 알지하지 않아서 순간적으로 당황할 수 있다. 84년생 계획은 중시만 실행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81, 25

42년생 천재일우의 귀중한 협력자를 만나게 되리라. 54년생 괴롭고 수고로운 일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66년생 우연을 가장한 속임수에 넘어가면 위험하다. 78년생 초심이 머지않아 바뀔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55, 99

여름엔 역시 공포지~

‘라자루스’ ‘데모닉’ ‘학교괴담’ 등 잇단 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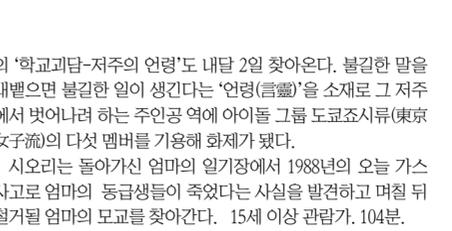
공포영화의 계절인 여름을 맞아 극장가에 속속 공포물이 찾아온다. 줄줄이 개봉 대기 중인 영화들은 심령이라는 초자연현상을 공포의 소재로 삼은 외화라는 공통점이 있다. 내달 2일 개봉하는 영화 ‘라자루스’(감독 데이비드 겔브)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라자루스 이펙트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원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깨우치 말아야 할 것을 깨웠다’는 설정으로 관객의 공포심을 자극한다.



라자루스



데모닉



학교괴담-저주의 언령

의 ‘학교괴담-저주의 언령’도 내달 2일 찾아온다. 불길한 말을 내뱉으면 불길한 일이 생긴다는 ‘언령(言靈)’을 소재로 그 저주에서 벗어나려 하는 주인공 역에 아이돌 그룹 도쿄조시류(東京女子流)의 다섯 멤버를 기용해 화제가 됐다.

“신인감독 주호성 인사드립니다”

한중 합작 영화 ‘플라로이드’ ... 딸 장나라 ‘애착 가는 작품’



내달 개봉하는 ‘플라로이드’는 DVC픽처스와 진스 민위에공사가 공동 제작한 한중 합작물이며 성우 출신 배우이자 연극 연출가인 주호성(65·사진)의 영화 연출 데뷔작이다.

데 아버지는 그 연세에 새로운 도전을 하는 걸 보니 누군가에게는 힘과 용원이 되지 않을까 한다”고 강조했다. 주 감독은 이에 “장나라는 드라마 촬영 일정이 너무 빡빡해서 집에서 잠을 1시간도 제대로 잘 시간이 없는데도 당노가 있는 아버지를 위해 특별한 뺑을 만들어 줄 정도로 효녀라 이 자리에서 자랑하고 싶다”고 화답했다.

주 감독은 23일 오후 광진구 롯데시네마 건대입구에서 열린 시사회 후 기자회견에서 “신인감독 주호성이 인사드립니다”며 “그간 많은 영화에 목소리 실으면서 영화 연출을 생각했는데 이번엔 실현하게 됐다”고 말했다.

포맨, 여섯번째 미니앨범 ‘유학’ 발표

“사랑·이별의 감정 노래에 담아”



신용재(왼쪽)·김원주

보컬그룹 포맨(신용재, 김원주)이 24일 여섯 번째 미니앨범 ‘유학’(留學)을 발표했다고 소속사 터바이브엔터테인먼트가 이날 밝혔다. 김원주가 오는 9월 입대를 앞두고 마지막으로 발표하는 앨범인 ‘유학’에는 사랑에 빠진 순간부터 이별의 감정까지가 감성적인 보컬로 표현됐다. 타이틀곡 ‘이별의’를 시작으로 사랑의 설렘을 담은 ‘담정너’(담은 정해져 있어, 너로), 이별의 슬픔을 그린 ‘유학’, 헤어짐을 후회하는 ‘그날들’ 등 총 4곡에 사랑, 설렘, 아쉬움, 이별의 감정이 현실적으로 담겼다.

사·작곡에 참여했다. 소속사는 “오랜만에 선보이는 앨범이자 김원주의 입대 전 마지막 앨범이어서 심혈을 기울여 작업했다”며 “포맨이 가진 색깔을 표현하고자 다양한 곡으로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김원주는 ‘그날들’을 작사하고 신용재는 ‘담정너’의 공동 작